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8.11~12)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제일재경(第一财经)은 이번 무역제재 조치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인용 보도하고 향후 한국의 반도체 관련 공급선 다양화에 따른 중국기업의 대체 가능성 여부를 분석¹⁾
- o 한국정부의 ‘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방안’과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한국이 향후 핵심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며, 현재는 일본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
- o 일본의 對韓 제재 품목 중 중국의 국산화 수준이 가장 높은 불화수소를 언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대체 가능성 여부를 점검
- *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약 10개이며, 그중 3곳이 일본, 나머지는 중국, 대만, 한국기업들임.
- * 2018년 중국의 불화수소 생산라인은 103개, 연간 생산능력은 192.1만 톤, 실제 생산량은 158.8만 톤이며, 이중 97%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은 DFD(多氟多), BEFAR(滨化股份), 중신푸차이(中欣氟材), Sanmei(三美股份), 장인룬마(江阴润玛) 등 10곳임.
- * 불화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불화수소산도 DFD(多氟多) 등 중국기업이 이미 부분적으로 일본을 대체하고 있음. 2018년 중국 전자산업용 불화수소산(Electronic grade hydrofluoric acid) 생산능력은 20만 톤임.
- o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한국 국내 및 중국기업이 만든 불화수소 제품을 테스트 중이고 LG 디스플레이는 한국 국내기업이 제조한 불화수소 제품 사용을 준비 중이며 포토레지스트는 중국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예정임.
- 동방재경잡지(东方财经杂志)는 일본의 강경한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한

1) 「日韩互相“拉黑”，中国供应链机会来了？」, 『第一财经』(2019. 8. 11)

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 등 때문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²⁾

-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정부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정부가 제시한 양국 정부 간 협상 해결, 제3국 중재 등 요구를 거절
- 일본은 한국이 핵시설 영구 폐기보다 남북통일에 더 신경 쓴다고 여기고, 핵 위협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이 통일될 경우 일본에 큰 위협이라고 판단
- 또한 현재 한중일 FTA 협상, 아세안 10개국과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싱가포르, 인도가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)도 추진 중인 데 이러한 시기에 한일 갈등이 중요한 협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

2) 「日韩贸易摩擦将波及全球产业链」, 『东方财经杂志』(2019. 8. 12)